

북한에서 ‘도시통제체제’의 형성: 관옵티콘의 건설*

정일영**

| 목 차 |

I. 서론	IV. 북한의 도시통제체제 관옵티콘 기제의 작동
II. 도시통제와 관옵티콘의 원리	V. 결론
III. 북한에서 도시의 역사특수적 구성	

| 논문요약 |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북한에서 도시를 기반으로 형성된 사회통제체제, 즉 ‘도시통제체제’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는 것이다. 북한의 도시는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 재건되는 과정에서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이 제안한 원형 감옥인 관옵티콘(panopticon)과 같은 공간으로 재구성되었다.

관옵티콘은 1) 감시권력에 의한 일방향의 수직적 통제, 2) 수인들 간의 수평적 단절, 3) 규율을 통한 신체의 통제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 논문은 북한에서 형성된 도시를, 전쟁의 특성이 내재화된 역사특수적 구성체로 상정하고 이와 같은 도시가 사회통제에 최적화된 구성물이었음을 논증하려 한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도시통제체제는 원자화된 구성원에 대한 일방향의 수직적 통제라는 성격을 갖는다. 둘째, 북한의 도시통제체제는 수평적으로 단절된 구조에 기반한다. 북한의 도시는 다른 지역, 지역 내 공간이 정치·경제적으로 차단되도록 건설되었다. 셋째, 북한의 도시민들은 조선로동당과 당이 통제하는 사회단체에 의해 규율화된 조직 생활에 귀속되어 그들의 신체를 통제받게 되었다.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1023476). 이 논문은 2017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에서 발표된 필자의 논문 “북한의 ‘도시통제체제’ 형성”을 수정·보완한 것임.

** IBK기업은행 북한경제연구센터 연구위원

▪ 주제어: 북한, 사회통제, 도시통제체제, 한국전쟁, 판옵티콘

I. 서론

이 논문은 북한의 도시공간에서 형성된 사회통제체제, 즉 ‘도시통제체제’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고찰하였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전후 북한에서 건설된 도시가 사회통제의 원형으로서 판옵티콘(panopticon)의 특징을 강하게 띠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도시는 자연을 기반으로 인간이 구성한 시간적, 공간적 구성물이다. 이와 같은 복합적 공간, 즉 도시는 인간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종교·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며 그것이 속한 사회의 이념, 경제적 상황, 사회조직의 형태, 그리고 권력과 자원의 배분 등 제반의 사회적 조건들에 의해 변화해 왔다(최윤경 2003, 12).

이 논문은 북한에서 형성된 도시의 성격을, 전후 형성된 북한의 ‘사회통제체제’가 내재화된 역사특수적 구성체로 상정하고 이를 분석하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도시통제체제는 1) 권위자로부터 시작되는 일방향의 수직적 감시와 통제(공급), 2) 사회의 소통을 가로막는 수평적 단절(격자) 구조, 그리고 3) 조선로동당과 사회단체에 의해 이탈자 없이 통제되는 조직 생활을 통해 작동된다. 판옵티콘(panopticon: 한눈에 전체를 모두 본다는 의미)의 도시는 전쟁의 폐허 속에 건설됐으며 원자화된 개인은 수령의 신경화 속에 탄생한 유기체적 사회의 세포로 구속되었다.

북한의 도시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건축 및 건설 분야, 또는 도시사적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이 연구는 북한 도시에 내재화된 사회통제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를 해석하고자 한다. 북한의 도시가 자본주의 도시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주의의 도시와도 구별되는 특징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창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정치 권력이 물질적 구조에 내재되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학문 분야별로 파편화되어 진행된 북한의 도시연구를 ‘사회통제’라는 개념을 통해 재해석한다는 점

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북한의 도시와 사회통제에 관한 연구는 일부 중첩되어 있으나 대부분 분리되어 진행되어 왔다. 북한의 도시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1) 도시건설 내지 건축 등 물리적 조건의 변화와 2)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도시의 성격을 분석한 연구 등이 상호 연계되어 진행되어 왔다.

전자의 시각에서 진행된 연구로는 임동우와 라파엘 루나, 김원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임동우와 라파엘 루나(2014; 2011)는 북한의 도시에 관한 통계 자료와 건축, 지리, 역사, 정치, 경제 등 다각적인 시각의 새로운 '북한 도시 읽기'를 제안하고 있다. 김원(2009)은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일반적 특성을 연구하고 이로부터 북한의 국토·도시계획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¹⁾ 또한, 북한의 도시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이상준(2014; 2012; 2011)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상준은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하여 북한의 주요 거점도시를 분석하고 '맞춤형' 개발추진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후자의 시각에서 수행된 연구로는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북한의 도시를 연구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정치·사회학의 시각에서 대단위로 도시를 분석한 초기연구라 할 수 있다. 특히 탈북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북한 도시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도시정치'의 특징을 분석하였다.²⁾ 동국대 북한학연구소는 도시사연구의 관점에서 함흥과 평성을 분석하고 도시의 공간 속에서 일상화된 사회관계의 양태를 분석하였다.³⁾ 추가적으로, 홍민(2015)은 북한의 시장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모빌리티를 연구하였다. 그는 북한의 시장화를 도시공간의 물리적 변화와 사회적 계층의 분화라는 '사회-공간적 과정'으로 상정하고 이를 구체적인 공간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는 특히 시장화가 지리적 공간구조 변화와 도시정치의 변화, 그리고 사회계층의 공간적 분화 등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⁴⁾

북한의 '사회통제'에 관한 연구는 도시 등 물리적 공간에 구속받기보다는

1) 이와 관련한 북한의 도시연구로는 대한토목학회 편(2009) 등의 연구가 있다.

2)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연구결과로는 최완규 편(2004; 2006; 2007) 등의 연구가 있다.

3) 동국대 북한연구소의 연구결과로는 고유환 외(2013; 2014) 등의 연구가 있다.

4) 이외에도 북한의 도시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시각의 연구로 임형백(2010), 전상인 외(2015) 등의 연구가 있다.

정치체제의 특성과 사회적 억압 기제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⁵⁾ 이와 같은 연구들은 주로 통제 권력(수령, 당, 혹은 관료조직)의 성격과 통제기구의 사회적 작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⁶⁾ 반면 국가의 사회통제에 대응한 인민의 대응과 그에 따른 사회통제체제의 성격 변화라는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1990년대 정치·경제적 위기로 탈북민이라는 증언자가 남한 사회에 정착하면서 북한 사회의 미시공간에서 진행된 다양한 변화상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미시공간의 생활상을 증언하고 있다.⁷⁾ 다만 북한의 ‘사회통제’에 관한 연구는 그 자체로도 제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의 사회통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⁸⁾

이 연구는 개별적으로 수행되어 온 도시연구와 사회통제에 관한 연구를 통합적 관점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도시통제체제에 관한 분석은 단순히 도시를 공간적 조건으로 이루어진 사회통제의 양상을 연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북한 사회의 통제체제가 형성된 역사적 시각이 물리적 공간과 정치·사회적 특성이 화학적으로 융합된 결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북한 도시의 성격을 역사특수적으로 구성된 통제체제, 즉 판옵티콘의 통제장치가 구현된 사회공간으로 설정하고 전후 북한의 도시가 재건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도시통제체제의 특징을 분석하도록 한다. 이 논문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도시통제를 논함에 있어 판옵티콘의 원리가 어떻게 조응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전쟁을 통해 북한의 도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고찰하였다. 4장에서는 전후 형성된 도시통제체제의 성격을 판옵티콘의 내재화란 관점에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이 논문의 연구성과와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5) 북한의 사회통제에 관한 연구로는 이우영(1999)의 연구가 시론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6)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전현준(2003), 이종석(1995)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7)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정은미(2014), 박순성·홍민 편(2010), 이교덕 외(2007) 등의 연구가 있다.

8)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의 사회통제에 관한 연구로는 김영호·김용호(2014), 송인호·이승은(2014), 이학립(2012), 최웅렬·이규하(2012), 임재학(2011) 등의 연구가 있으며, 통제기구와 범죄행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II. 도시통제와 판옵티콘의 원리

사회공간은 개인의 삶과 그들의 관계로 형성된 사회공동체가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현상이 공존하는 곳이다(Foucault 1984, 252). 사회적 필요로 구축된 물리적 공간은 필연적으로 그 사회환경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물리적 구조물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종교·문화적 기능을 수용하여 그것이 속한 사회의 이념, 경제적 상황, 사회조직의 형태, 그리고 권력과 자원의 배분 등 제반의 사회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최윤경 2003, 12). 이러한 사회와 물리적 공간의 융합은 해당 사회의 역사적 경로에 따라 차별화된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도시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체들이 응집된 공간이다. 도시형태학의 관점에서 린치(Lynch)는 도시의 형태를 '인간 행위의 공간적 배치',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인간, 사물, 정보의 공간적 흐름'으로 정의하고 있다(Lynch 1981, 48).

이러한 정의에 따라, 도시의 형태는 세 가지 모델, 즉 우주적 모델(cosmic model), 실용적 모델(practical model), 그리고 유기적 모델(organic model)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우주적 모델은 우주의 질서와 같은 형태로 "권력의 정교한 표현과 사회적 위계질서의 공간적 재현"으로 도시를 이해한다. 둘째, 실용적 모델은 기계장치와 같이 도시의 기능과 의도가 구분되어 있는 거대한 기계와 같이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유기적 모델은 살아 있는 생물체에 비유되는 도시형태로서 서로 독립될 수 없는 부분들의 결합으로 형성되며 확실한 경계와 적절한 규모를 가진다(최윤경 2003, 41). 북한이 건설한 유기체적 사회에서 도시는 유기적 모델로 재구성되었으며 권력자의 효율적인 통제를 가능케 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와 같은 도시는 정치, 즉 유한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공간으로서 사회통제의 대상이자 사회통제의 기제가 재생산되는 유기적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통제(Social Control)란 '하나의 집단이나 사회가 공동체의 규범적 기대에 구성원들이 순응하게 만드는 수단과 과정들'로 정의된다(Cohen & Scull 1983, 6). 사회통제는 "개인의 자기통제에서 행위자와 집단 상호 간, 그리고 국가의 통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물리적 강제와 회유, 그리고 동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사회통제는 하나의 조

직이 구성원을 규제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정일영 201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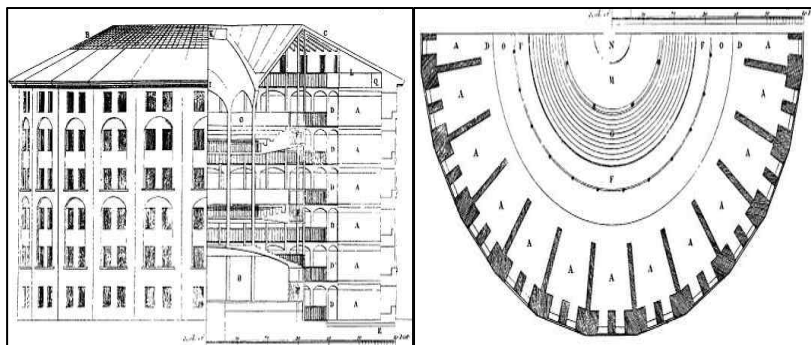
이 논문은 사회통제가 작동하는 공간으로서 도시를 분석한다. 도시라는 공간에서 작동되고 재생산되는 사회통제의 양식을 도시통제체제로 상정하고 북한의 도시에서 형성된 도시통제체제의 역사특수적 구성과정을 통해 그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도시는 하나의 물리적 공간이자 정치·행정의 공간으로 개별 사회의 특성에 따라 그 경계가 명확하기도, 혹은 불명확하여 외부와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받기도 한다. 다만 북한의 도시는 그 역사적 형성과정에서 부여된 도시의 정치적, 사회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더욱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도시의 통제 원리를 이해하는 하나의 시각으로 판옵티콘의 원리를 들 수 있다. 판옵티콘은 근대적 사회통제의 일면을 드러내려는 비판적 접근이다. 판옵티콘은 1791년 영국의 사상가인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이 제안한 원형 감옥이다. 그가 제안한 설계에 따르면, 판옵티콘은 원형의 탑이 중앙에 위치한 복층의 감옥이다. 원형탑은 감옥에 있는 수감자를 중앙에서 일방향의 시선으로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Panopticon’이란 용어는, ‘두루’를 뜻하는 그리스어 ‘pan’과 ‘보다’는 의미의 ‘opticon’이 합쳐진 개념이다.

판옵티콘은 일방향의 수직적 통제 속에 구성원 간 소통을 차단함으로써 개인을 원자화시키는 물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제레미 벤담이 제시한 판옵티콘의 설계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1> 판옵티콘의 설계도



▪ 미셸 푸코(2016, 311)

이상에서 논의한 판옵티콘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갖는다. 판옵티콘은 1) 일방향의 수직적 통제 형태를 띠고, 2) 수평적 단절의 구조를 보이며, 3) 규율을 통한 신체의 통제라는 특징을 갖는다.

첫 번째로, 판옵티콘은 일방향의 수직적 감시체계이다. 판옵티콘은 '바라봄과 보임'의 결합을 분리한 장치이다. 판옵티콘은 시선을 통한 통제, 즉 원형의 건물 안에서 그들을 통제하는 통제시선을 보지 못한 채, 그들 스스로 보이기만 하는 일방향성을 특징으로 한다. 판옵티콘의 중앙탑 속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수인들은 그들의 존재를 알 수 없다(푸코 2016, 311-312). 이와 같이 판옵티콘은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을 보장해주는 가시성을 확보해주며 의식적인 상태에 수감자를 놓이게 함으로써, 감시가 중단되더라도 그 효과가 지속되도록 한다(푸코 2016, 12-13).

두 번째로, 판옵티콘은 수평적 단절 구조를 통해 수인들의 소통과 교감을 차단한다. 판옵티콘의 장치는 감시자가 대상을 바라보고 즉각 판별할 수 있도록 공간들을 구획하고 있으나 수인들 상호 간의 공간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다. 수인들은 감시인이 정면에서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는 독방 안에 감금되어 있고 양쪽의 벽은 동료들과 접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푸코 2016, 310-311).

세 번째로, 판옵티콘은 규율을 통해 신체를 통제한다. 판옵티콘은 수인을 훈련시키고 규율적 행위규범을 통해 순응하는 신체를 만든다. 판옵티콘에서 시간의 구획과 그에 따른 신체의 통제, 예를 들면 노동은 수인이 규율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된다(푸코 2016, 337).

그렇다면 판옵티콘의 성격이 내재화된 도시란 어떤 곳일까? 이 논문에서 판옵티콘의 특징이 투여된 도시는 도처에서 개인을 감시하고 그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통제체제라 할 수 있다. 판옵티콘은 권력의 기능적인 장치이며 개인을 훈련시킴으로써 그들을 순응하는 신체로 만든다. 판옵티콘의 성격이 투여된 도시는 중앙의 감시와 통제를 통해 권력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시에 공급되는 물자와 재화는 사회통제의 도구로 활용된다.

이 연구는 북한의 도시가 역사특수적 구성의 과정을 통해 판옵티콘의 억압적 통제 기제가 강화된 형태로 구현되었음을 논증한다. 다만 이 논문은

관옵티콘의 개념을 북한의 도시를 이해하는 데 활용하려는 시도이며, 북한의 도시가 그러한 설계를 의도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실제로 북한의 도시는 전후 한반도의 상황이 투여된 역사적 과정의 결과라 하겠다. 북한의 도시는 그 형성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여타의 도시와 다른 관옵티콘의 특징을 배태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의 도시는 한국전쟁의 파괴와 재건이라는 물리적 조건의 변화, 그리고 전쟁의 과정과 전후의 사회적 변화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 이해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는 정치, 즉 유한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공간으로서 사회통제의 대상이자 사회통제의 기제가 재생산되는 유기적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Ⅲ. 북한에서 도시의 역사특수적 구성

관옵티콘의 도시는 무엇보다 고립된 구조를 통해 현실에서 작동 가능하다. 북한은 한국전쟁을 통해 구성원의 이동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도시를 건설하였다.

1. 한국전쟁과 도시의 파괴

한국전쟁은 물리적 조건으로서 도시에 변화를 가져왔다. 아이러니하게도 도시의 파괴는 권력자가 새로운 도시를 재건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소련이 미공군의 폭격상황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쟁 당시 도시의 파괴는 공중폭격을 통해 진행되었다. 아래는 한국전쟁 당시 소련의 정보원이 본국에 보고한 자료 중 일부이다.

적은 제공권을 장악함으로써 1일 평균 400회까지 출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전선에서 전투가 격화되거나 조선인민군 후방에 집중적으로 맹렬한 공습이 감행될 때는 출격횟수가 1일 1천 회까지 증가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2006, 653-657).

한국전쟁 당시 UN연합군은 1950년 11월부터 북한지역의 모든 시설물과 공장, 시가지와 마을을 폭격함으로써 전선과 북중국경선 사이를 분리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공군은 B-29 70대로 신의주에 소이탄(550톤)을 투하하였으며, 회령에 네이팜탄 폭격이 감행되었다. 또한 미국은 함정을 이용하여 원산 등을 41일간 폭격하였다(커밍스·할리데이 1989, 117; 158). 허영철(2001)에 따르면, 1951년 2월 평양에 재진주할 당시 연합군의 공중폭격으로 인하여 평양에서 지상건물이 없었다고 한다.

북한을 방문하여 조사한 국제민주여성연맹의 보고서에 의하면, “평양에 있던 종합대학 1개, 단과대학 6개, 소학교 43개, 중학교 20개, 전문학교 5개, 기술전문학교 4개소”가 파괴되었으며, 미군이 평양에서 철수하면서 80%의 건물이 소각되었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약 12만 명이 거주하고 있던 신의주는 1950년 11월에 있는 연합군의 폭격으로 “3,017호의 가옥 가운데 2,100호가 파괴되었고 17개 초등학교 중 16개”가 파괴되었다고 한다. 또한, 남포를 방문한 조사단은 2만여 개의 건물들이 파괴되었는데, 이 중 13개의 병원과 24개의 학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조선중앙통신사 1952, 200-210).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북한 지역이 파괴되었다는 점에서 북한과 연합군의 주장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후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전쟁기간 8,700여 개의 공장이 파괴되었으며, 60만 호의 살림집, 5천 개의 학교, 천여 개의 병원과 진료소 등이 파괴되었다고 한다(사회과학원 1981, 175). 미극동군 또한 북한의 도시들이 대부분 파괴되었다고 평가하였다(김태우 2013, 377).

2. ‘주체형의 사회주의 도시’ 건설

전쟁은 북한의 전 지역을 파괴하였으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파괴는 기존의 도시 양식을 청산하고 사회주의 정권이 원하는 도시화를 가능하게 하였다(차문석 2013, 262). 사회주의체제하에서 도시의 성장과 기능, 공간구조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 결정됐다(Sailer-Fliege 1999, 8). 북한은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국토를 ‘주체형의 사회주의 도시’로 건설하려 했다(리화선 1993, 29).

이제 야만들의 폭격에 의하여 파괴된 도시와 읍 및 공장지대들을 복구 건설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과거 일본제국주의시대의 비문명적이며 특권계급의 이기적 목적에 부합되었던 퇴폐한 도시건설방식을 배격하고 근로 인민의 생활에 편리하며 현대적 문명생활에 적합하도록 도시와 읍들을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 1960, 25).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도시는 그러나 휴전체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구성원의 이동이 철저히 차단된 고립된 구조를 갖게 된다.

북한이 건설하고자 한 ‘주체형의 사회주의 도시’는 사회주의 계획도시와 다른 상징체계, 즉 수령을 정점으로 한 상징체계를 특징으로 하였다. 그 결과 ‘주체형의 사회주의 도시’는 기본적으로 수령의 절대성을 강조된 사상 교양의 공간으로서 그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도시의 역할은 도시의 구성에 반영되었는데, 도시의 중심부에 김일성의 동상을 배치하고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광장과 교육 시설이 조성되었다(대한토목학회 2009, 31-32).

북한의 도시는 또한 전후 휴전협정을 통해 종결 아닌 종결을 맞은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상황이 반영된 구성체라 할 수 있다. 도시는 구성원을 위한 생활 및 소비시설,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도 도시의 일부로 귀속함으로써 하나의 자생적 단위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농촌은 도시의 식량을 보장하며 생산 단위 또한 도시 간의 연계성보다는 자체적인 생산연합체계를 구축하도록 설계되었다(임동우 2014, 199-202).

3. 전후 북한 사회의 재편

전후 북한은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새롭게 재편되었다. 여기서는 정치적 확일성의 강화와 사회계층의 재편, 그리고 이들 양자를 강화시킨 요소로서 전시체제의 지속이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북한에서 사회통제는 원자화된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용된다. 특히 도시는 물리적 단절의 기본단위로 상징되었다. 북한에서 사회공동체는 수령을 정점으로, 적과 아를 구분하는 사회계층의 명확한 구분, 즉 성분을 통해 원자화된 개인을 특징으로 한다. 수령을 원점으로 일방향의 시선이 개인에게 투여되는 것이다.

첫 번째로, 한국전쟁은 김일성을 북한의 수반을 넘어선 ‘수령’의 지위로

격상시켰으며 수령으로부터 사회의 구성원에게까지 연결되는 수직적인 유일지도체제가 형성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쟁에 따른 인적, 물질 파괴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던 '미제국주의'의 만행으로 규정되었으며 이렇게 형성된 '집단적 복수의식'이 인격화된 공동체의 지도자,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으로서 김일성은 신격화되었다(박영자 2005, 181-183).

특히 1956년 8월의 종파사건의 결과로 김일성 세력을 견제하던 최소한의 정치 세력이었던 연안파와 소련파가 숙청됨으로써 김일성 1인 체제가 확립되었다.⁹⁾ 또한, 8월의 종파사건이 종결된 후, 조선로동당과 사회 전반의 종파를 숙청하는 사회조사사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됨으로써 반김일성 세력이 사회 전반에서 축출되게 된다.¹⁰⁾

1961년 9월, '영광스런 승리자의 대회'로 명명된 제4차 조선로동당 대회는 김일성의 빨치산 세력이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로 평가된다(이종석 1995, 287-288). 수령을 정점으로 조선로동당, 그리고 파편화된 대중을 연결하는 획일적 지도체계가 완성된 것이다.

두 번째로, 북한은 한국전쟁을 준거로 사회계층이 재구성되었다. 해방 이후 북한을 장악했던 사회주의 세력은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기반하여 사회계층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그들의 의도를 굴절시켰다. 한국전쟁은 수많은 전사자와 전사자 가족, 전시 부상자, 그리고 월남자의 가족 등을 양산하였다. 전후 북한의 사회계층구조는 기존의 '계급 중심'에서 전시의 피해, 행위의 정치적 평가 등에 따라 재편되었다(김병로 2013, 181). 한국전쟁은 두 달여의 피점령 기간에 구성원이 '적들에게' 어떻게 대응하였는가에 따라, 그리고 한국전쟁에 어떠한 형태로 참여하였는가에 따라 사회계층을 재편하는 준거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계층의 재편은 전후 장기간 지속된 사회조사사업을 통하여 3계층, 즉 핵심계층(혁명요소), 동요계층(중간층), 적대계층(반혁명요소)으로 재편해 나갔다. 결과적으로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유일지도체제는

9)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최창익, 윤공흠, 서희, 리필규, 박창욱 등 동무들의 종파적 음모에 대하여'를 채택하고 남아 있던 연안파와 소련파를 숙청하였다(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56, 12-17).

10) 사회의 기층단위에서 조선로동당의 지배는 농촌에서 청산리방법을 통하여, 그리고 공장 등 도시지역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통해 이행되었으며 일상의 생활공간에서 동원과 상호감시, 그리고 교육 및 선전선동의 방식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한국전쟁을 통해 형성된 핵심계층, 즉 ‘무의식적 충성계층’의 강한 동질감 속에 강화되었다.¹¹⁾ 1958년 8월 종파사건 이후 진행된 중앙당집중지도사업에서 ‘핵심계층’은 조선노동당원, 혁명 유가족, 애국열사 유가족, 전사자 가족, 영예군인 등으로 이들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높은 ‘가입비용’을 감당한 충성집단으로 약 350만 명으로 추정된다(정일영 2011, 147-148).

반대로 ‘적대계층’으로 분류되는 구성원은 월남자 가족 및 반공단체 가입자와 가족, 군대 기피자와 귀환 포로와 가족, 남반부출신자 및 입북자와 가족 등 약 3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김남식 1972, 208-211). 이러한 사회계층의 재편은 해방 이후 한국전쟁기까지 지속된 ‘이탈’, 즉 저항세력의 부재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¹²⁾ 적대계층의 낙인은 판옵티콘의 도시에서 가장 철저히 감시해야 할 ‘수인’으로 규정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계층의 재편은 도시의 물리적 구조 속에 성분에 따라 원자화된 구성원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IV. 북한의 도시통제체제: 판옵티콘 기제의 작동

이 연구는 북한의 도시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도시는 해당 사회의 역사가 응축된 공간으로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리트머스지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북한의 도시들은 역설적으로 북한당국의 의도에 따라 새롭게 구조되었다.

먼저, 북한의 도시는 판옵티콘과 같이 외부와의 단절된 구조로 건설되었다. 전후 북한의 도시는, 내적으로, 단핵의 구조를 통해 내적 통합력과 응집력을 극대화하는 공간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박희진 2013, 229). 또한, 북한

11) 조직에서 무의식적 충성분자의 비대화는 조직(국가)의 쇠퇴에 대응한 구성원의 대응기제(감각)를 마비시키게 된다(Hirschman 1970, 91-93).

12) 권태환은 전시에 납하한 북한주민을 약 64만 명으로 추정하였다(Kwon 1977). 이와 달리 한국산업은행조사부는 전시 월남자가 약 150만 명이라고 추산하였다(한국산업은행조사부 1955, 339).

의 도시는, 외적으로, 다른 지역과 독립된 정치·경제적 독립성을 갖도록 건설되었다(임동우 2014, 199-202). 이와 같은 자생적인 독립단위로서 도시의 설계는 전후 형성된 휴전체제의 특성, 즉 군사적 목적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결국, 구성원 특히 적대계층은 이주와 이동의 자유가 철저히 제한되었다. 이주와 이동을 원할 경우 당의 통제하에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다. 이와 같은 외부와 단절된 구조는 북한의 도시를 판옵티콘과 같은 통제체제로 만드는 기본 바탕이 되었다.

전후 북한의 도시는 1) 권위자로부터 시작되는 일방향의 수직적 감시와 통제(공급), 2) 사회의 소통을 가로막는 수평적 단절(격자) 구조, 그리고 3) 조선로동당과 사회단체에 의한 조직 생활을 기반으로 판옵티콘과 같은 사회통제가 제도화된 권력장치이자 사회 공간이었다.

1. 권위자로부터 시작되는 일방향의 수직적 감시와 통제(공급)

첫 번째로, 북한의 도시통제체제는 원자화된 구성원에 대한 수직적 통제라는 성격을 갖는다. 여기서 '수직적'이라 함으로 정치 권력의 투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즉 경제적 자원의 일방적 분배, 그리고 정보의 일방성이라는 특성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 식량과 자원의 통제는 휴전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이 중첩되면서 더욱 강한 일방성을 가능하게 했다. 도시통제에 있어 이와 같은 권력과 가치의 일방적 투사는 수령을 정점으로 사회유기체를 표방하는 주체사상이라는 강한 통제규범 아래 사회적 동의구조를 형해화 시켰다.

도시건설의 규범 또한 정치적 상징공간이 도시공간을 투사하는 구조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의 혁명전적지와 사적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징공간에서 주민들은 일상적인 국가의례를 통해 자발적 충성의 의식을 일상적으로 반복하게 된다(조은희 2014, 98-99).

일방향의 수직적 통제 구조 속에서 구성원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통제 기제들, 예를 들어 경찰조직과 정보조직의 보이지 않는 시선 속에 놓이게 된다. 이는 판옵티콘에서 수인이 통제자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는 원리

와 같다.

2. 사회의 소통을 가로막는 수평적 단절(격자) 구조

두 번째로, 북한의 도시통제체제는 수평적으로 단절된 구조에 기반한다. 북한의 도시는 다른 지역과 독립된 정치·경제적 독립성을 갖도록 건설되었으며 구성원의 이동과 이주는 엄격히 통제되었다. 수평적 단절은 인적 유동성의 단절과 함께 정보의 단절을 의미하며 수평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차단하게 한다.

이와 같은 수평적 단절의 도시구조는 국가가 의·식·주의 생산과 분배의 전 과정을 통제하는 철저한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가능하다. 수평적 단절 구조는 전시체제의 성격이 지속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전후 상당기간 동안 간첩과 이적세력에 대한 사회적 상호감시체제가 유지되면서 수평적 단절을 강화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단기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거주지의 이동 또한 철저히 국가의 승인과 등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금순 2007, 9).

또한, 수평적 단절의 구조는 도시 공간 안에서도 실현된다. 구성원은 각각의 공간에서 수평적인 단절의 구조하에 놓이게 된다. 일상의 생활과 생산의 공간에서 구성원은 조직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 공간 안에서 개인은 오픈된 상호 감시의 통제를 받게 된다.

3. 조선로동당과 사회단체에 의한 조직 생활

세 번째로,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단절’에 기반한 도시통제체제는 휴전체제라는 한반도 분단체제의 위기담론 속에 재생산되어 왔다. 전후 준전시상태의 지속은 북한당국이 ‘전시에 준하여’ 구성원을 통제하는 데 있어 규범적 정당성을 부여하였고 억압적 사회통제가 재생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억압적 통제 기제는 조직생활을 통해 일상화되었다.

북한에서 조직 생활은 사회공동체의 일상단위까지 침투한 조선로동당과 당의 통제를 받는 사회단체에 의해 이행되었다. 조직 생활은 판옵티콘에서

진행되는 규율에 의한 신체의 통제와 같다. 도시의 구성원은 자신이 소속된 공간, 즉 생산공간과 일상의 공간에서 조직의 소속원으로 상호 감시의 구조에 포섭된다. 특히 일상적 공간에서 진행되는 비판과 자기비판은 성원에게 사적인 공간을 불허하고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자기통제의 규범을 내재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조직 생활의 지속은 도시의 구성원들을 끊임없이 객체화하고 고립시키게 되고 그들은 원자화된다. 조선로동당과 사회단체에 의해 사회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통제는 개인의 성분과 삶의 궤적을 기록함으로써 중앙의 통제로부터 구성원을 격자화된 열린 공간 속에 가두는 결과를 가져왔다.

V. 결론

북한의 도시는 한국전쟁 이후 수직적으로 통제되고 수평적으로 단절된 판옵티콘과 같은 도시통제체제로 재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도시통제체제는 이해 불가능한 북한 사회를 유지하는 주요한 정치 기제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도시통제체제는 원자화된 구성원에 대한 일방향의 수직적 통제라는 성격을 갖는다. 북한의 도시통제체제는 수령을 정점으로 사회유기체를 표방하는 주체사상이라는 강한 통제규범 아래 권력과 사회규범이 일방적으로 투사되는 구조로 형성되었다. 둘째, 북한의 도시통제체제는 수평적으로 단절된 구조에 기반한다. 북한의 도시는 다른 지역, 지역 내 공간이 정치·경제적으로 차단 되도록 건설되었으며 구성원의 이동과 이주는 엄격히 통제되었다. 셋째,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단절'에 기반한 도시통제체제는 휴전체제라는 한반도 분단체제의 위기담론 속에 재생산되어 왔다. 준전시상태의 지속은 북한당국이 전시에 준하여 구성원을 통제하는 데 있어 규범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극대화된 북한의 경제위기는 배급제의 붕괴에 따른 대량아사와 탈북현상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경제위기는 도시통제체제

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으로 단절된 구조를 이완시키며 북한사회의 변화를 추동하였다. 최근 북한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조직생활의 형식화, 배급제의 중단과 시장화, 그리고 사회적 유동성의 증대와 그에 따른 사적 네트워크의 형성은 기존의 수직적이며 단절된 도시통제체제를 이완시키고 있다.

향후 북한의 사회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의 맥락을 고찰함에 있어 도시공간의 통제체제가 갖는 기존의 특성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고유환 외 (2013).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법』. 한올아카데미.
- _____ (2014).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 도시사』. 한올아카데미.
- 국사편찬위원회(편역) (2006). “조선인민군 총군사고문이 소련군 총참모장에게 보낸 보고서, 1951년 미군 항공대의 손실에 대한 간략한 분석, No. 04, 1952년 1월 11일.”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년-53년』. 국사편찬위원회, pp. 653-657.
- 김남식 (1972). “북한의 공산화과정과 계급노선.” 공산권연구실(편). 『북한 공산화과정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 김병로 (2013).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6권 제1호, pp. 171-213.
- 김영호·김용호 (2014). “북한의 범죄 유형과 실태에 관한 고찰.” 『현대북한연구』. 제17권, pp. 100-128.
- 김원 (2004). 『사회주의 도시계획』. 보성각.
- 김일성 (1960).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복구 발전을 위하여(1953년 8월 5일).” 『김일성선집』. 제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p. 25-31.
- 김태우 (2013). 『폭격: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창비.
- 대한토목학회(편) (2009). 『북한의 도시 및 지역개발』. 보성각.
- 리화선 (1993). 『조선건축사Ⅲ』. 발언.
- 박순성·홍민(편) (2010).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한울.
- 박영자 (2005). “한국전쟁이 북한 정치문화에 미친 영향: ‘臣民型 社會’ 형성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48권. 제1호, pp. 165-191.
- 박희진 (2013). “북한 평성시의 공간전략과 도시성 변화: 위성도시에서 개방도시에 로.”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북한연구학회.
- 브루스 커밍스·존 할리데이 (1089).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차성수·양동주(역). 태암.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81). 『조선전사』. 27권.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송인호·이승은 (2014). “최근의 북한의 사유화·시장화 현상에 비추어 본 북한 불법행위책임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고』. 46권, pp. 257-284.
- 이교덕 외 (2007).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통일연구원.
- 이금순 (2007).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전망』. 통일연구원.
- 이상준 외 (2014).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협력 실천 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 이우영 (1999).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통일연구원.
- 이종석 (1995).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 이학립 (2012). “북한의 범죄행태 연구에 대한 이론적 검토: 사회통제이론과 합리적 범죄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63호, pp. 149-168.
- 임동우 (2011).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효형출판.
- _____ (2014). “북한 주요 도시의 공간 구조와 다이어그램.”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의 도시사』. 한울아카데미, pp. 17-40.
- _____ (2014). “사회주의 도시의 교훈.” 임동우·라파엘 루나(편). 『북한 도시 읽기』. 담디, pp. 7-18.
- 임동우·라파엘 루나(편) (2014). 『북한 도시 읽기』. 담디.
- 임재학 (2011). “북한의 사회통제력과 산림황폐화.”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4권. 1호, pp. 77-102.
- 임형백 (2010). “사회주의 북한 공간구조의 자본주의 공간구조로의 변화 전망: 북한 내부요인과 동북아공간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제10권. 1호, pp. 265-290.
- 전상인 외 (2015). “국가 권력과 공간: 북한의 수도계획.” 『국토계획』. 제50권. 1호, pp. 21-40.
- 전현준 (2003). 『북한의 사회통제기구 고찰』. 통일연구원.
- 정은미 (2014).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과 사회변동.” 『아세아연구』. 제57권. 4호, pp. 142-173.
- 정일영 (2011). “북한의 쇠퇴에 따른 구성원의 대응과 회복 가능성 분석.” 『통일연구』. 제15권. 제1호, pp. 131-165.
- _____ (2014). “북한의 사회통제체제 형성, 1945-1961: 규범·동의·재사회화.”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56). “최창익, 윤공흠, 서희, 리필규, 박창옥 등 동무들의 종파적 음모에 대하여(1956.8.30).” 『결정집 1956년』. 평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pp. 12-17.
- 조선중앙통신사(편) (1952). “미제 침략군과 리승만 괴뢰군이 감행한 만행에 대한 국제녀맹 조사단의 보고서.” 『조선중앙년감 1951-52년』.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pp. 200-215.
- 차문석 (2013). “문헌자료를 통해서 본 북한의 도시 역사.”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법』. 한울아카데미, pp. 243-272.
- 최완규(편) (2004).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한울아카데미.
- _____ (2006).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한울아카데미.

- _____ (2007).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 한올아카데미.
- 최윤경 (2003). 『사회와 건축공간』. 시공문화사.
- 최응렬·이규하 (2012). “북한 인민보안부의 사회통제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1호, pp. 187-218.
- 한국산업은행조사부 (1955). 『한국산업경제십년사: 1945-1955』. 한국산업은행조사부.
- 허영철 (2001). “허영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민족문화연구소(편). 『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 선인, pp. 394-437.
- 홍민 (2015).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 계층변화』. 통일연구원.
- Cohen, Stanley and Andrew Scull (1983). “Introduction: Social Control in History and Sociology.” Stanley Cohen and Andrew Scull (eds.). *Social Control and State*. New York: St. Martin's Press, pp. 1-16.
- Foucault, M. (1984). “Space, knowledge, and power.” Paul Labinow (ed). *The Foucault Reader*. New York: Pantheon Books, pp. 239-256.
- Hirschman, Albert (1970).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 Cambridge: Harvard UP.
- Kwon, Tai Hwan (1977). *Demography of Korea: Population Change and Its Components 1925-66*.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Lynch, K (1981). *Theory of Good City Form*. Cambridge, Mass: MIT Press.
- Sailer-Fliege, U (1999). “Characteristics of post-socialist urban transformation in East Central Europe.” *GeoJournal*. Vol. 49. No. 1, pp. 7-16.

2. 기타

- 국토연구원 (2011).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 I』.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상준 외 (2012).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II』.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 논문투고일 : 2020년 02월 14일 |

| 논문심사일 : 2020년 02월 25일 |

| 게재확정일 : 2020년 03월 18일 |

| ABSTRACT |

**The Formation of the ‘City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Construction of the Panopticon**

Il-young Jeong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This paper gives analyses on the formation of The formation of the ‘city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How and When have the city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been formed? This paper provides arguments with the historical formation about the ‘city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North Korean regime had built its social control system as Panopticon from the Korean War. North Korean had been embraced into the structure of routine resocialization in its production unit and living space in the Panopticon.

The key analyses in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key analyses in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North Korea’s city control system has the character of one-way vertical control over its atomized citizens. the city control system was formed under the strong control code of ‘juche’. Second, the city control system is based on a horizontally cut structure. The North Korean city was built to block space in other areas and within the region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Any movement and migration of its members were strictly controlled. Third, the city control system based on ‘vertical control and horizontal disconnect’ has been reproduced of in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could have the legitimacy of controlling citizen in a quasi-war status.

However the economic crisis in North Korea, which was maximized in the mid-1990s, resulted in mass starvation and escape from the North Korea. Such an economic crisis has weakened the city control system. For this reason, further research should be needed on changes in the city control system.

- Key words: North Korea, Social Control, City Control System, Korean War, Panopticon